

“주를 위해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계 3:7~13)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주를 위해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너무 광범위 하죠? 왜냐? 주를 위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되고, 다양하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그 이유가?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매 순간 주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결국,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8절을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씀이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작은 교회,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 생각이고, 오히려 약속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선행이 풍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고, 예수 믿는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사데 교회와 대조되는 교회입니다. 상황은 비슷해요? 박해와 고난이 많았지만,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진리에 충실하게 반응했습니다. 외관상 작은 교회라, 제한된 영향력 때문에 좌절도 느꼈어요? 이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상황의 제약이 아닌, 엄청난 기회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요? 어떤 학자들은? “천국의 열린 문”, 또는 이 교회를 주님이 휴거시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주신다고 하지만,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요? “사역의 열린 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가요? 사데에서 남동쪽으로 약 48km 떨어진 신생도시인데? 소아시아 동쪽의 고원 지대로 들어가는 길목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일명 “동방으로 가는 관문”이라

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니 무역로가 교차하고, 여러 언어와 문화와 민족 집단이 만난 곳, 여기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으니, 자연스럽게 전도와 선교에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졌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었다고 말해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작은 능력”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소량의 자원과 역량, 상대 교회를 통한 비교입니다. 즉, 자기 교회가 인근 라오디게아 같은 재력과 영향력도 없고, 에베소처럼 풍부한 역사와 유산도 없고, 사데처럼 대단한 평판이나, 서머나처럼 충성스럽다는 명성도 없고, 교회도 작으니까, 보잘것없으니, 가난하고 종종 무시당하던 교회이기에, 스스로 사역 역량이 적다고 한 것이예요. 원인은? 이 ‘작은’에 더 무게를 둔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요? 일꾼이 많아 무조건 잘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개인과 교회의 제약을 발판으로 삼아, 원대한 계획에 착수하시는데, 종종 우리처럼, 아니 우리 교회처럼 약하고 미련하고, 미미하고 초라한 자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은 ‘능력’에 더 무게를 주시기에 그렇습니다. 고전 1장 26~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마 17장 20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새벽기도회 때 나눈 말씀이 연결되었습니다. 시편 4편 3~4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

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외적인 조건을 잘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누리는 은혜가 바로 7~8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상황은요? 기뻐할 수도 없고, 분노와 절망이 가득하고, 서러움이 극에 달한다 하지만, 누리는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다는 것,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기 때문이고, 조건보다 최상위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기에, 처한 환경 때문에 함몰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두셨다는 이 은혜가 답인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능력은요? 아주 작았어요? 하지만 잠재력이 컸습니다. 왜냐? 규모나 자원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거룩함과 충성됨, 그리고 주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문을 통하여 큰일을 이루신다는 말씀, 이 기회의 문을 주신다는 것이고, 이 약속으로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은 교회이고, 능력도 작지만, 잠재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규모나 자원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거룩함과 충성 됨, 그리고 주님의 주권 때문에, 주를 향한 갈급함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은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네 가지 약속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그들 앞에 적들이 굴욕을 당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처럼 유대인들의 비방과 핍박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한계에

있었고, 성도들도 좌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작은 능력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편지 서론은 7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이”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 유일한 대상, 즉 하나님 외에 “거룩한 이”로 불릴 수 있는 존재가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이”는? ‘거짓이 아닌 참이신 이’, 교회를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라고 주장해도, 당신이 바로 참된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의미는 메시아로서의 절대적인 권세,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 그대로,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뿌리이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당신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이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너희들 앞에 적들이 굴욕을 당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또한 모든 산자를 지킨다는 약속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요? 장차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시고자 진노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견된 진노의 시기가 “시험의 때”이고, 이 시기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노하심에서 건져주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초자연적으로 심판에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굽의 열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진노의 자리에서 완전히 빼내실 수 있다는 것,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에 롯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사도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17절에 하나님이 장차 임할 환난에서 교회를 구원하실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 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무

엇이예요? 진노나 환난을 경험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구원과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계속 강하고 안전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11~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불시에 오실 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큰 약속, 영원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처럼 될 것이다”, 사실 빌라델비아 도시는요? AD 17년에 큰 지진으로 땅이 흔들려 붕괴했어요?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 즉 하늘의 흔들리 않는 성전에서, 아무도 그들을 다시 나가게 할 수 없다는 말씀,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새로운 소속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이것은? 새로운 시민권, 새로운 정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시민권이 로마가 아니고 하늘에 있다는 것, 그리고 충성의 대상이 이 땅의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이 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닫힌 문을 만나요? 이 닫힌 문을 쳐다보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안 그래요? 세워놓은 계획이 도대체 왜? 제대로 풀리지 않는지 의아해하고, 낙심과 실망에 빠집니다. 심지어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찌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인 모습이 이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작다’라는 이 답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초점을 벗어나 ‘**능력**’에 초점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 능력은 누가 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아납니까? 한 예로 여호사밧을 보면, 그도 닫힌 문에 있었어요? 남 유다의 4대 왕이 그입니다. 남 유다는 요단강을 사이로 북이스라엘, 동쪽으로 암몬, 사해를 사이에 두고 남 유다 동쪽으로 모압이 있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갔다고, “**하나님의 계**

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를 좇지” 않았다고,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왕” 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었거든요? 그는 주변 나라들이 강해지니까, 정략적으로 북이스라엘 아합왕과 사돈을 맺어 나라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전쟁이 일어나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국경을 넘어 엔게디 지방까지 진격해 온 것인데요? 이 내용이 역대하 20장에 나와요? 나중에 읽어 보세요? 그가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해요. 여러분, 위기는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입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바로 하나님을 찾겠다는 행위인데요. 그렇게 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대하 20장 15절과 17절,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요? 죽음을 넘나드는 어려움이 있다 해도? 삶의 주인이고 위기 상황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응답 받은 그가 어떻게 해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쟁터로 나아가는데, 무기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요? 저들은 피차 살육하면서, 한 사람도 피한 자 없이 멸망하고 맙니다. 정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신뢰”입니다. 닫힌 문을 보지 마세요? 그 너머,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고, 삶의 주인인 하나님, 위기 상황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며, 믿고 신뢰하는 것이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의

닫힌 문을 여실 것이고, 여러분은 열린 문을 통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기에 앞서 이 찬양 1절을 불러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물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었죠? 내가 어떻게 순종하실지,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